

닭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란 질병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뭘 놈의 질병은 이리도 많은지 세상살이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듯해 한숨만 나온다.

17년여의 직장생활을 접고 이곳 양평에서 육계사육을 시작한지 벌써 햇수로 11년째에 접어든다. 물론 혼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위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육계농장을 시작했고 초창기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으며 수업료(?)도 많이 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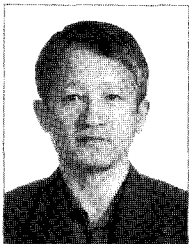
시작 당시엔 농장매입관계로 H사와 계약사육을 했으나 당시 그 회사병아리에서 큰 문제가 됐었던 저혈당증(물론 지금도 간간히 일부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때문에 계약회사를 M사로 바꾼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인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육일지 및 간이일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예전의 성적을 뒤적이다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곤 한다.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육계산업이야 오죽하리오.

초창기 생산지수 200대 초반의 초라한 성적이 근래에 들어선 연평균 300선으로 올라섰으니 그 동안 본인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병아리, 사료, 기계 및 시설산업 그리고 사육기술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발전을 해온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면 뒤엔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 국제유가 불안, 환율 불안정, 더욱 거세지는 수입개방 압력, 여기에 AI(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종 질병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처지라 생각된다.

얼마 전 자기개발차원에서 이곳 친환경 생태문화의 도시 양평군에서 군민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교실에 등록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원어민 영어회화' 교실인데 옛날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마음만 앞설 뿐 머리 따로 입 따로...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가끔 영국인 선생님이 자유로운 주제를 정해 개인발표 및 토론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



박 규 덕
덴디농장



의 직업도 참으로 다양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어렵지만 재미있었다.

그 날은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내 소개가 끝나자 실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졌다.

어눌한 영어로 답변하기에 진땀을 뺐는데, “왜 닭을 키우게 됐느냐?”, “왜 일꾼도 없이 그 많은 닭(5만5천수)을 부부가 관리하느냐?”, “자기가 키운 닭도 잡아먹느냐?”, “왜 알 낳는 닭은 키우지 않느냐?” 등….

양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미처 몰랐던 지라 힘들면서도 내심 뿌듯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 그 다음 주 주제발표 때 나는 그들에게 “닭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라는 얘길 해주었다. 물론 어눌한 영어로.

이야기인 즉,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95% 이상을 수입하는데 그 비싸고 귀한 사료를 먹고 생산되는 제일 경제성 있는 고기가 바로 닭고기인 바 고기 1kg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료량이 돼지고기는 3kg, 쇠고기는 무려 5~6kg인데 반해 닭고기는 겨우 1.7kg 정도에 불과하며 게다가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의 선진국형 다이어트식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육류 중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애국하는 길이다” 라고 말해주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니엘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수강생을 우리 농장에 초대해 맛있는 ‘무공해 닭고기 백숙’을 대접하고 싶다.